

2023. 6. 15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1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

경영 관리부장	박 재 희	3146-1101
-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홍보 민원 과장	홍 승 기	3146-1210
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담 당 자	이 은 주	3146-1215
-------	--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관 련 누리 집	공공예약시스템 <a href="https://yeyak.seoul.go.kr">https://yeyak.seoul.go.kr</a>
----------	--

### 서울시 아리와 정수장은 처음이자? 수돗물이 궁금하다면 체험 신청하세요

- 한강물이 수돗물로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체험하고 근대 역사와 과학 실험도 진행
- 6월부터 시민 누구나 공공예약시스템 및 정수센터, 구의문화재, 수도박물관으로 전화 신청

-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정수센터에서 아리수 생산 과정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  -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재난 상황에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아리수정수센터 시민 견학을 잠정 중단했었다.
- 서울시 정수센터 견학은 인솔자와 함께 안전 조치에 따라 진행되며, 수돗물 생산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아리수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.
-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하루 평균 305만톤의 수돗물을 구의, 뚝도, 광암, 영등포, 암사, 강북 총 6개의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다.

수돗물 생산 과정 체험 프로그램은 우선 구의아리수정수센터와 뚝도아리수정수센터를 시작으로 정수센터의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



▲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침전지 전경

- 구의아리수정수센터(광진구 구의2동)는 정수장 내에 있는 근대 상수도 문화유산인 구의문화재 견학을 비롯해 어린이, 청소년, 성인 등 대상에 따라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  -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물환경 교육을 주제로 한 시간 동안 몸 속 수분 측정 체험, 간이 정수 및 수돗물 잔류염소 실험과 에코백 꾸미기, 물피리 등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다.
  - 청소년과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근대 수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구의문화재 투어를 진행한다. 1941년 설립된 제1정수장과 1959년 설립된 제2정수장이 포함된 구의문화재를 둘러보고, 전망대에서 구의 정수센터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. 청소년은 문화재 관람 후 간이 정수 및 수돗물 잔류염소 실험을 할 수 있다.
  
- 뚝도아리수정수센터(성동구 성수1가동)는 1908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장으로 국내 유일 수도박물관과 함께 수돗물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.

-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수도박물관 내 물과 환경 전시관, 유형문화재인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장과 완속여과지 등을 둘러보고 상수도의 역사와 기술의 변천 과정, 유물 등을 관람할 수 있다. 야외에서는 두레박, 작두펌프 등 물과 관련된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.
- 대학생, 전문가, 관련 기관 등의 공식적인 견학 요청이 있을 때는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 착수, 혼화, 침전, 여과, 고도정수처리 등 아리수 생산 과정을 견학 통로와 전망대로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.

□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‘구의문화재’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인근 ‘수도박물관’ 견학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공공예약시스템(<https://yeyak.seoul.go.kr>)과 유선 전화(구의문화재 02-3146-5953, 수도박물관 02-3146-5921)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견학을 희망하는 전문가, 유관기관은 행정관리과(02-3146-5512)로 문의하면 된다.



□ 한편,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교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.

교사 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 참여 교직원을 모집하며, 이들은 똑도아리수정수센터와 수도박물관을 견학한다.

-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“어린이들이 수돗물을 통해 서울의 역사와 더불어 정수 과정 속 과학적 원리를 재미있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.”라면서 “시민들이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아리수의 생산 과정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.”라고 말했다.